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사회적 자산으로 쌓이길 희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의 창업’ 6만2944명 신청
 “창업국가 선언에 큰 의미 부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모두의 창업” 도전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들이 사회적 자산으로 쌓이길 희망한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이나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글로벌 리그’를 추가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성숙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중기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발 예정인) 5000명보다 (도전했다 탈락한) 5만7000여 명이 더 신청했다. 하반기에는 가급적 (모두의 창업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 마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접수를 마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총 6만2944명이 신청했다.

한 장관은 “9세부터 90세까지 세대를 넘나들면서 창업이라는 단어의 버튼을 누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전국 멘토기관의 검증을 거쳐 내달 중 총 5000명의 창업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처음 진행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선 일단 5만7944명이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한 장관은 “현 정부가 내달 4일 1주년을

맞는데 ‘창업국가 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에 대한 국민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면서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소공인 데이터베이스도 넣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소공인들도 연결해 줄 것이다. 서로 고객이 되게 연결해주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올 한해 ▲모두의 창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 ▲TIPS(TIPS)를 통한 ‘성장’ ▲점프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약’ ▲재도전과 안전망’을 정책 중심에 두고 파나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 금액을 늘리거나 경영안정바우처를 더 준다고 폐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실시한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체계를 좀더 갖춰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7만5000건의 위기알림톡을 보낸 결과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소상공인 중에서 1인 여성 지역업자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기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도 관련 정책이 많아 공조가 필요하다. 그룹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 관리해 정책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로컬창업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8월말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통해 행정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중소기업 정책 관점을 앞으로는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성장만 보겠다는 것도 아니다. 성장을 위한 정책은 약 13만5000개 정도인 중기업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 성장과 보호, 안전망을 나눠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전자 “6K 게이밍 모니터 체험하세요”

강남·홍대서 오디세이 체험존 마련
 업계 첫 6K 화질 지원·듀얼모드 기능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 6K 게이밍 모니터를 신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열고 게이밍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섰다. 업계 최초 6K 게이밍 모니터를 비롯한 플래그십 제품을 앞세워 고사양 게이밍 시장 공략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강남역에 위치한 ‘메이플 아지트’와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T1 베이 스퀘어’ 두 곳에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체험존에서는 ‘오디세이 G8(G80HS)’과 ‘오디세이 OLED G8(G80SH)’ 등 모니터 신모델의 뛰어난 화질과 연결성, 빠른 응답 속도 등 최적의 게이밍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AI PC와 고사양 게임 수요 확대에 따라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모델이 강남역 ‘메이플 아지트’에서 삼성전자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삼성전자

글로벌 OLED 게이밍 모니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역시 초고해상도·OLED 중심의 프리미엄 게이밍 시장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

업계 최초 6K(6144×3456) 화질을 지원하는 ‘오디세이 G8(G80HS)’은 2100만 개 이상의 픽셀을 통해 기존 FHD 대비 10배 이상, 4K UHD 대비 약 2.5배 이상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고해상도 그래픽 기반의 RPG(역할수행게임)와 RTS(실시간 전략게임)를 보다 매끄럽고 몰입감있게 즐길 수 있다.

또 ‘오디세이 G8(G80HS)’은 224 PPI의 높은 픽셀 밀도로 섬세한 디테일까지 정밀하게 표현하며 마치 종이에 인쇄된 출력물을 보는 듯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특히 사용 환경에 따라 ‘6K·165Hz 초고해상도’ 모드와 ‘3K·330Hz 초고주사율’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듀얼 모드’ 기능을 탑재해 RPG부터 FPS(1인칭 슈팅게임)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최적의 게임 경험을 지원한다.

‘오디세이 OLED G8(G80SH)’은 완벽한 블랙으로 무한대의 명암비를 구현하는 ‘트루블랙’ 기술을 갖춰, 다크 판타지 게임이나 화려한 광원이 돋보이는 SF게임처럼 빛과 어둠의 대비가 극명한 게임 플레이에 최적화된 화질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퓨처엠, LFP 양극재 사업 본격화

공장 착공... 연산 5만톤 생산 확대

포스코퓨처엠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엔트리급 전기차 배터리 수요 확대에 대응해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사업을 본격화한다. 기존 삼원계 양극재 중심 포트폴리오에 LFP 제품군을 더해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커지는 공급망 다변화 수요에 대응하려는 전략이다.

포스코퓨처엠과 피노, CNGR의 합작사 씨엔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에서 안전기원 행사를 열고 LFP 양극재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 공장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며 생산능력은 단계적으로 연산 최대 5만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LFP 양극재 공장 건설 안전을 승인하고 같은 달 합작 파트너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등 삼원계 배터리보다 출력은 낮지만 가격 경쟁력과 긴 수명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로 ESS 수요가 빠르게 늘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엔트리급 모델을 중심으로 LFP 배터리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배터리 업체들도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다. 각국의 통상 정책과 공급망 다변화 요구가 강화되면서 한국산 LFP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



포스코퓨처엠의 합작사 씨엔피신소재테크놀로지가 포항 영일만 4산단에 건설하는 LFP 양극재 공장 조감도. /포스코퓨처엠

보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공장 착공을 계기로 삼원계 양극재와 LFP 양극재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포항 양극재 공장의 하이니켈 제품 생산라인 일부를 LFP 양극재 생산라인으로 개조하고 있다”며 “2분기 중 시제품 생산을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중진공, 7년 연속 기금운용평가 ‘탁월’

자산운용 성과·관리체계 우수성
 전담조직 필수 위원회 역할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금운용평가에서 25개 기금 가운데 유일하게 7년 연속 ‘탁월’ 등급을 받았다.

28일 중진공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주관의 ‘2025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이 자산운용 성과와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7년 연속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

기금운용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여유자금 운용 성과, 운용체계, 정책 수립, 투자집행의 적정성 등 4개 부문을 심사하며 ‘탁월’부터 ‘아주미흡’까지 총 6단계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번 평가에서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총 3개다.

중진공은 고금리 지속과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등 변동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시장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기민하

게 대응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특히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자산운용 전담조직을 필수로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전주기 위험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AI 공급망의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K자형 성장’으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영환경은 냉혹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중진공은 기금 건전성을 바탕으로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올해 총 12조229억원 규모의 중진기금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업 육성 및 위기극복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지원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답테크 창업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김승호 기자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 첫 지급

신보중앙회, 신고 2건 지급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을 처음 지급했다.

신보중앙회는 제3차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행위를 막고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불법 브로커 통합신고센터에 올해 접수된 15건의 신고 가운데 정부기관 등 사칭 관련 신고 2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 포상금을 처음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2건의 신고 모두 증빙을 포함한 접수된 것으로, 내용의 구체성 및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 1차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신고자의 협조성, 증거의 구체성, 혐의 결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각 100만 원과 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신고포상제는 기존 제3차 부당개입 신고제도에 포상금 지급을 연계해 부당개입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고 허위 서류 작성 등 금융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포상금 규모는 건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수사 진행단계 등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 규모의 20%(수사의뢰전), 30%(수사의뢰시), 50%(확정 판결시)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들 2건의 신고는 불법 브로커가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미끼로 기존대출 상환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급전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확인됐다. 피해 신고 건 중 1건은 현재 경찰청 등 수사당국에 의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앞으로도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보증 사기·서류 조작 등 금융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